

WEBVTT

00:00:32.304 --> 00:00:35.604

안녕하세요?

GSEEK의 임영주입니다.

00:00:36.163 --> 00:00:38.457

우리나라에서 아빠,

00:00:38.482 --> 00:00:42.500

이 아빠의 의미는

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.

00:00:42.661 --> 00:00:46.445

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모습.

00:00:46.645 --> 00:00:52.402

한편으로는 고개 숙인 가장으로

또 대표되기도 하죠.

00:00:52.757 --> 00:00:55.039

뒷모습, 그 힘들어하는 뒷모습이

00:00:55.064 --> 00:00:58.750

바로 고개 숙인 아빠의

모습이기도 한데요.

00:00:59.049 --> 00:01:02.812

예전에는 아이 교육에서

아빠가 차지하는 비중이

00:01:02.837 --> 00:01:05.195

그렇게 크지 않았습시다.

00:01:05.379 --> 00:01:06.699

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죠.

00:01:06.724 --> 00:01:08.593

아빠는 밖에서 일하시고

00:01:08.618 --> 00:01:13.027

어머니는 집 안에서 가정을 돌보며

자식 교육에 힘쓰는

00:01:13.052 --> 00:01:16.352

이런 모습이 전형적인

모습이기도 했는데요.

00:01:16.634 --> 00:01:18.925

정말 시대가 변했습니다.

00:01:18.950 --> 00:01:24.296

어머니도 바깥일을 하고

아빠도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요.

00:01:24.409 --> 00:01:29.394

그래서 아빠 교육이

요즘 화두인 것 같습니다.

00:01:29.870 --> 00:01:34.316

하지만 아이 교육에서  
아직은 어색한 아빠들,

00:01:34.587 --> 00:01:38.691  
이 시대가 원하는 아빠 이야기를  
하다 보면

00:01:38.817 --> 00:01:43.300  
남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 
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.

00:01:43.325 --> 00:01:47.812  
남편과 아내가 아이에게는  
부모라는 존재가 되고요.

00:01:47.837 --> 00:01:52.539  
또 아빠라는 존재는 엄마에 의해  
조명이 되기도 합니다.

00:01:52.564 --> 00:01:57.421  
그러니까 남편의 역할도  
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.

00:01:57.748 --> 00:02:01.679  
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 
우리나라 아빠들께

00:02:01.704 --> 00:02:03.808  
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

00:02:03.911 --> 00:02:06.816  
아이 잘 키운다는 게 어떤 건가요?

00:02:06.974 --> 00:02:12.695  
혹시 아이 잘 키운다는 게  
아이 옆에서 이렇게 좀 해 주고

00:02:12.720 --> 00:02:16.777  
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 
아빠들 계실 텐데요.

00:02:16.802 --> 00:02:19.062  
자칫하면 좋은 아빠가 되려고

00:02:19.087 --> 00:02:23.652  
하나부터 열까지 해 주려고 하는  
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

00:02:23.677 --> 00:02:26.835  
이건 우리 아이를 수동적으로  
만드는 겁니다.

00:02:26.996 --> 00:02:30.273  
아이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 
구성해 나가면서

00:02:30.298 --> 00:02:32.617  
인지 발달을 해 나가는데요.

00:02:32.642 --> 00:02:40.717  
보고 느끼면서 배울 것이 있는 환경을

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02:40.742 --> 00:02:45.000

그렇다면 능동적인 주체로  
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

00:02:45.025 --> 00:02:48.808

우리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 
만들어주어야 할까요?

00:02:49.128 --> 00:02:57.353

바로 아빠가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  
환경을 만들어주어야겠습니다.

00:02:57.378 --> 00:03:02.410

그렇다면 아이 교육을 위해서  
좋은 환경이란 뭘까요라고

00:03:02.435 --> 00:03:04.824

또 물음표가 떠오르실 텐데요.

00:03:04.849 --> 00:03:07.812

지금부터 이야기 몇 가지  
해 볼까요?

00:03:08.141 --> 00:03:15.048

첫 번째는 아빠 교육의 특명은  
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.

00:03:15.073 --> 00:03:16.738

아내를 사랑하는 것이

00:03:16.763 --> 00:03:21.621

아이를 잘 키우는 데  
어떤 역할을 하기에 특명 1호인가요?

00:03:21.873 --> 00:03:24.628

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.

00:03:24.653 --> 00:03:26.621

당연한 거거든요.

00:03:26.646 --> 00:03:32.656

우리 아이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 
남편으로서의 아빠를 보이는 모습은

00:03:32.681 --> 00:03:37.265

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 
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00:03:37.483 --> 00:03:39.746

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요.

00:03:39.771 --> 00:03:43.867

아이 앞에서 아내와 싸우거나  
험한 말을 하거나

00:03:43.892 --> 00:03:46.308

혹시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

00:03:46.333 --> 00:03:49.492

우리 아이에게는  
정서적인 환경 가운데서도

00:03:49.517 --> 00:03:53.417

가장 안 좋은 환경을  
만들어주는 겁니다.

00:03:53.442 --> 00:03:57.207

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텐데요.

00:03:57.373 --> 00:04:00.156

엄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,

00:04:00.181 --> 00:04:04.003

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 
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

00:04:04.028 --> 00:04:08.417

우리 아이가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 
만들어 가는데요.

00:04:08.442 --> 00:04:10.136

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

00:04:10.347 --> 00:04:15.195

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 
알려진다는 말이 있거든요.

00:04:15.220 --> 00:04:21.093

그러면 남편이 정말 잘해야  
아내의 입에서 남편을 존중하는 말,

00:04:21.118 --> 00:04:23.398

칭찬하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

00:04:23.423 --> 00:04:28.164

사실은 아빠는 아빠 롤모델 없이  
현재 아빠가 됐기 때문에

00:04:28.189 --> 00:04:31.489

엄마보다는 육아에 있어서  
서툴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4:31.963 --> 00:04:37.050

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, 아빠가  
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

00:04:37.075 --> 00:04:39.218

아이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.

00:04:39.243 --> 00:04:43.242

정서적으로 인지 발달도  
잘 해 나가게 됩니다.

00:04:43.267 --> 00:04:46.567

두 번째, 아빠 교육의 특명은

00:04:47.125 --> 00:04:51.972

바로 권위를 가져라,  
권위를 지켜라입니다.

00:04:51.997 --> 00:04:55.136

이거는 권위주의하고는  
굉장히 다른 겁니다.

00:04:55.180 --> 00:04:59.081

권위주의는 권위도 없는데  
내세우는 겁니다.

00:04:59.106 --> 00:05:00.214

나를 존중해.

00:05:00.239 --> 00:05:03.539

하지만 존중받는 것,  
존중하게 하는 것이

00:05:03.564 --> 00:05:06.308

바로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.

00:05:06.333 --> 00:05:10.644

가부장적인 아빠를 떠올리는  
권위가 아니라,

00:05:10.669 --> 00:05:13.769

복종을 하게 하는 아빠가 아니라

00:05:13.794 --> 00:05:17.441

우리 아이로 하여금  
아빠는 참 멋지다,

00:05:17.466 --> 00:05:22.011

우리 아빠는 참 존경스러워라는  
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

00:05:22.036 --> 00:05:24.199

아빠의 권위입니다.

00:05:24.224 --> 00:05:29.082

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구 같은  
아빠가 되지 마세요.

00:05:29.107 --> 00:05:32.031

어?  
friendly라는 말이 있잖아요.

00:05:32.056 --> 00:05:38.242

그런데 아빠가 친구 같은 거지  
친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

00:05:38.267 --> 00:05:41.054

우리 아이 달래려고  
아빠 한 대 때려 하면서

00:05:41.079 --> 00:05:45.742

아이가 깔깔깔 웃으면  
아이의 기분이 풀어졌다고 생각하면서

00:05:45.767 --> 00:05:48.964

온몸으로 아이에게 헌신하는 아빠가  
계시거든요.

00:05:48.989 --> 00:05:53.417

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 
응석받이로 키우는 겁니다.

00:05:53.442 --> 00:05:58.242  
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빠로서의  
권위를 잘 지키는 것

00:05:58.267 --> 00:06:01.777  
이게 바로 또 아이에게 존중받는  
아빠이기도 하고

00:06:01.802 --> 00:06:04.589  
육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

00:06:04.614 --> 00:06:10.136  
그러면 먼저 아빠가 스스로  
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.

00:06:10.353 --> 00:06:16.386  
결국은 괜찮은 아빠가 뭔가요라고  
말씀하신다면

00:06:16.411 --> 00:06:22.200  
괜찮은 사람이 바로 괜찮은  
아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.

00:06:22.440 --> 00:06:26.475  
아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아빠가  
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

00:06:26.500 --> 00:06:30.976  
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 
먼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00:06:31.460 --> 00:06:37.196  
아빠 되기, 아빠 역할  
참 쉽지 않습니다.

00:06:37.221 --> 00:06:41.386  
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행동  
몇 가지 말씀드리면

00:06:41.411 --> 00:06:44.062  
조금 더 가까워질지 모르겠습니다.

00:06:44.536 --> 00:06:47.836  
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.

00:06:48.289 --> 00:06:52.304  
여전히 아빠들은 바깥일에 바쁘죠.

00:06:52.329 --> 00:06:54.335  
워킹맘 엄마들도 바쁘지만

00:06:54.360 --> 00:06:58.261  
엄마들은 몇 시부터는  
우리 아이랑 함께 지내야 해,

00:06:58.286 --> 00:07:00.332  
이런 의무감을 갖습니다.

00:07:00.357 --> 00:07:02.402  
그런데 아빠들은 어떻게 보면

00:07:02.427 --> 00:07:06.328  
바깥일이 아직은 우선이라고  
생각을 할 텐데요.

00:07:06.353 --> 00:07:09.653  
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 
할 것 같습니다.

00:07:09.678 --> 00:07:17.265  
그리고 정작 아이와 시간이 적어지면  
관계도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져서

00:07:17.290 --> 00:07:21.269  
나중에 우리 자녀가 정말  
사춘기에 들어섰을 때는

00:07:21.294 --> 00:07:24.531  
우리 아이하고 전혀 대화가  
되지 않아서

00:07:24.556 --> 00:07:29.121  
큰소리를 쳐야만 무언가 얘기를  
했다라고 하는

00:07:29.146 --> 00:07:33.203  
그런 권위주의적인 아빠가  
될 수도 있거든요.

00:07:33.556 --> 00:07:37.441  
일하느라 녹초가 돼서  
정말 힘든 아빠들,

00:07:37.641 --> 00:07:40.058  
주말에도 내가 좋은 아빠가  
되어야 해?

00:07:40.083 --> 00:07:41.992  
주말이면 나도 쉬고 싶은데.

00:07:42.017 --> 00:07:48.515  
그러한 아빠들에게 평소에  
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권합니다.

00:07:48.540 --> 00:07:52.968  
사실 미루고 핑계를 대다 보면  
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.

00:07:52.993 --> 00:07:56.835  
오만 가지 핑계가 있다.  
굉장한 거거든요.

00:07:57.236 --> 00:08:01.425  
먼저가 아이가 되고 가정이 되고  
아내가 될 때

00:08:01.450 --> 00:08:04.414  
이 시대의 아빠 역할이 가능합니다.

00:08:04.660 --> 00:08:09.121  
밖에서 몸으로 놀아주는 것만이  
꼭 아빠의 역할은 아니에요.

00:08:09.146 --> 00:08:10.644  
아빠의 성격에 맞게,

00:08:10.669 --> 00:08:14.179  
성향에 맞게 실내에서  
블록놀이도 하고요.

00:08:14.204 --> 00:08:16.328  
밥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요.

00:08:16.353 --> 00:08:20.156  
또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  
나누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

00:08:20.181 --> 00:08:22.480  
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이고

00:08:22.505 --> 00:08:25.996  
그리고 좋은 아빠의 역할을  
하는 것입니다.

00:08:26.396 --> 00:08:30.136  
아빠 스스로가 부담을  
벗어나야 하는데요.

00:08:30.161 --> 00:08:34.472  
제가 아까 아빠 역할을 하는 거  
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

00:08:34.497 --> 00:08:36.679  
제가 드린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

00:08:36.704 --> 00:08:39.550  
어? 저 정도는 나도 지금  
잘하고 있는데?

00:08:39.575 --> 00:08:44.667  
할 수 있어라는 그런 격려가  
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

00:08:44.692 --> 00:08:51.269  
그런데 제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 
한 가지 더 말씀드릴려고 싶어요.

00:08:51.294 --> 00:08:55.546  
요즘 아빠들이 아이들과 브런치를  
먹는다든가

00:08:55.571 --> 00:08:57.246  
엄마는 집에서 또 쉬게 하고

00:08:57.271 --> 00:09:00.781  
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 
아빠들도 꽤 계세요.

00:09:00.806 --> 00:09:05.078  
당연히 제 눈에는

그런 아빠와 아이의 모습이

00:09:05.103 --> 00:09:07.187  
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9:07.212 --> 00:09:10.781  
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 
우와, 참 좋은 아빠다.

00:09:10.806 --> 00:09:15.605  
우리 아이 좋겠다라고  
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

00:09:15.992 --> 00:09:18.378  
이런 장면으로 바뀝니다.

00:09:18.562 --> 00:09:22.871  
아빠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이나  
태블릿PC 주고

00:09:22.896 --> 00:09:27.792  
아이에게 동영상을 보게 하고  
또 아빠도 휴대폰 보는 경우가 있는데

00:09:27.817 --> 00:09:30.371  
여러분, 도루묵이라고 하시죠?

00:09:30.396 --> 00:09:33.696  
지금까지 잘한 것이  
도루묵이 됩니다.

00:09:33.897 --> 00:09:37.949  
왜냐하면 아이는 영상에  
빨리 익숙해질수록

00:09:37.974 --> 00:09:41.274  
나중에 인지 발달상에  
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

00:09:41.299 --> 00:09:44.599  
이 부분은 좀 긴 얘기가  
필요하기 때문에

00:09:44.624 --> 00:09:46.328  
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.

00:09:46.353 --> 00:09:49.960  
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 
경우에는

00:09:49.985 --> 00:09:54.941  
일찌감치 디지털 기기 주고  
아이의 혼을 뺏고 난 다음에

00:09:54.966 --> 00:09:58.266  
게임 하느라 부자 관계가  
뒤틀린 경우

00:09:58.286 --> 00:10:01.406  
정말 상담 사례에서도  
많이 보게 되거든요.

00:10:01.431 --> 00:10:03.221  
휴대폰 주지 마시고요.

00:10:03.246 --> 00:10:07.480  
그런데 제가 한 5분 지나다 보면  
아이랑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

00:10:07.505 --> 00:10:10.805  
아직 아이도 어리고요,  
이런 아빠 계시는데

00:10:11.037 --> 00:10:14.960  
지루하다 싶으면 아이 손잡고  
산책해도 좋고요.

00:10:14.985 --> 00:10:18.144  
하늘 보고 도란도란 얘기  
나누시고요.

00:10:18.169 --> 00:10:20.195  
바람의 느낌도 이야기하시고요.

00:10:20.220 --> 00:10:23.520  
아이랑 동요 불러보셔도 괜찮습니다.

00:10:23.545 --> 00:10:29.414  
우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손잡고  
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

00:10:29.439 --> 00:10:33.847  
또 끄덕끄덕 긍정적인  
표정만 보여줘도

00:10:33.872 --> 00:10:37.910  
아빠하고 참 행복했어,  
우리 아빠 참 좋아,

00:10:37.935 --> 00:10:40.000  
나 참 사랑받는 아이야.

00:10:40.025 --> 00:10:43.613  
이런 느낌 충만하게  
받을 수 있습니다.

00:10:43.638 --> 00:10:46.938  
만약에 아이랑 놀 때  
너무 장난식으로 논다든가

00:10:47.021 --> 00:10:51.347  
비교육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 
부부가 둘이 있을 때

00:10:51.781 --> 00:10:56.464  
자기야, 이렇게 할 때는  
이렇게 하면 참 좋아라고 하면서

00:10:56.489 --> 00:10:58.359  
아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

00:10:58.384 --> 00:11:01.406

엄마가 도움을 주는 게  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11:01.431 --> 00:11:03.710

말씀드린 것처럼  
아빠 역할에 대한 것이

00:11:03.735 --> 00:11:05.605

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

00:11:05.630 --> 00:11:10.312

지금 어색하나마 최선을 다하는  
모습일 수도 있고요.

00:11:10.337 --> 00:11:17.050

또 남편은 엄마한테, 아내에게  
아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서

00:11:17.075 --> 00:11:20.625

아이와 함께할 때  
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

00:11:20.650 --> 00:11:22.343

아이랑 놀이를 해 준다면

00:11:22.368 --> 00:11:26.386

훌륭한 아빠의 역할을  
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
00:11:26.853 --> 00:11:31.328

아빠는 큰 산 같은 분입니다.

00:11:32.470 --> 00:11:36.210

어떤 때 보면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 
흉내 내려고

00:11:36.235 --> 00:11:39.746

정말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 
아빠들도 보지만

00:11:39.771 --> 00:11:43.183

사실은 아빠만의 역할이 있어요.

00:11:43.499 --> 00:11:48.164

아빠의 목소리로 아빠의 표정으로  
아빠의 몸짓으로

00:11:48.189 --> 00:11:50.996

우리 아이하고  
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

00:11:51.021 --> 00:11:55.917

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든든한  
육아 지원자가 있는 겁니다.

00:11:56.168 --> 00:12:01.542

엄마와 아빠의 장점을 살려서  
균형감 있는 육아를 할 때

00:12:01.567 --> 00:12:04.867

우리 아이는 정말 잘 자랍니다.

00:12:05.096 --> 00:12:10.359

아이에게 아빠는 평생 멘토라는 것  
꼭 기억해 주세요.

00:12:10.557 --> 00:12:12.937

GSEEK의 임영주였습니다.